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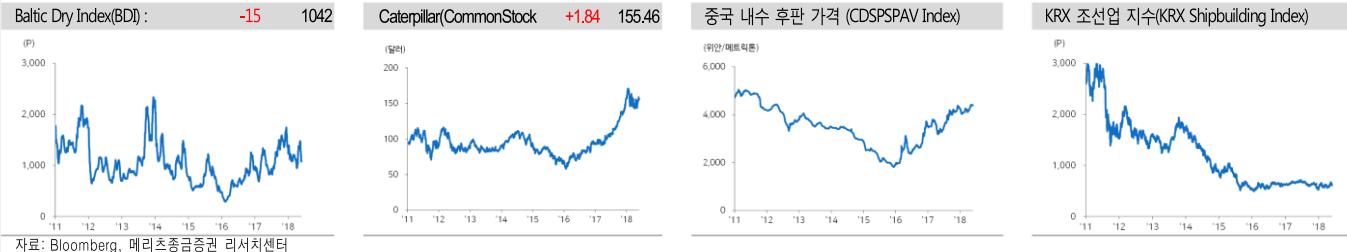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815.7	16.4	113,000	-2.2	-5.4	-13.7	17.8	78.7	37.7	0.6	0.5	0.7	1.4
현대중공업지주	6,188.9	21.6	380,000	-4.3	-10.1	-14.1	-0.3	5.1	4.3	0.7	0.6	14.1	14.7
현대엘리트릭	972.6	4.5	95,300	5.0	1.4	5.3	-16.4	9.0	7.9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39.5	8.4	166,000	-2.1	-12.6	-2.4	-1.8	10.5	7.8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4,599.0	17.2	7,300	-1.4	-0.7	-3.3	12.9	460	228	0.4	0.4	1.0	1.9
대우조선해양	2,814.2	4.8	26,250	-1.7	9.4	5.0	88.8	84	121	0.8	0.8	102	6.5
현대미포조선	1,814.0	9.8	90,700	-2.9	1.3	-16.8	15.2	19.6	14.1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48.9	6.6	3,290	-3.5	-2.7	-1.8	-0.6	66.2	16.5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3,503.4	23.0	129,000	12.7	24.0	119.8	137.1	22.8	222	3.1	2.8	14.6	13.3
두산밥캣	3,303.2	26.8	32,950	-3.7	1.1	-3.1	-8.0	12.1	11.4	0.9	0.9	7.4	7.6
현대로템	3,408.5	15.8	40,100	3.5	50.2	159.5	113.9	51.7	352	2.3	2.2	4.5	6.3
하이록코리아	388.0	49.4	28,500	-2.4	3.3	15.6	26.7	12.9	11.8	1.1	1.0	8.8	9.0
성광밴드	371.8	17.7	13,000	1.6	3.6	5.7	30.3	1,149.2	466	0.8	0.8	0.1	1.8
태광	339.2	12.5	12,800	0.8	-11.1	-13.2	6.2	76.4	37.3	0.8	0.8	1.0	2.1
두산중공업	1,985.5	11.9	18,650	-0.3	4.2	24.7	21.5	20.7	11.7	0.6	0.6	3.4	5.3
두산인프라코어	2,185.5	15.5	10,500	-1.9	2.4	12.4	20.8	7.5	6.9	1.2	1.0	16.0	15.1
두산엔진	482.3	4.2	6,940	-0.4	10.5	61.2	88.3	-24.3	-38.4	1.0	1.0	-3.0	-3.5
한국항공우주산업	4,318.1	15.0	44,300	-2.5	2.5	-11.9	-6.6	33.4	24.7	3.5	3.1	10.4	13.0
한화테크윈	1,677.9	14.4	31,900	-3.0	32.4	9.4	-10.3	37.9	21.0	0.7	0.7	2.0	3.4
LIG넥스원	1,113.2	10.0	50,600	0.0	27.9	3.3	-15.4	21.9	14.8	1.7	1.6	8.6	11.4
태웅	358.1	4.6	17,900	-2.7	-6.5	-17.3	-7.5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170.5	5.3	6,320	-0.9	-1.4	-28.2	25.1	-46.5	66.5	2.0	1.9	-4.3	3.1
한국카본	266.8	13.9	6,070	-0.5	1.3	-6.0	13.2	33.1	17.2	0.8	0.8	2.5	4.7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Vitol inks debut VLCC order as first trader to target sector

Vitol은 현대중공업에 30만DWT급 스크버리 장착 VLCC 4척을 척당 9.2~9.3천 만달러에 계약함. 몇 달 전까지 VLCC는 척당 8천만달러 중반이었으나, 최근 한국 조선사는 9천만달러를 찾는다며 알려짐. 선가 상승은 1) 한국 조선소가 수주 잡고를 확보하는 중이고, 2) 철강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알려짐. (TradeWinds)

현대중공업, 호주서 570억원 규모 태양광 계약 체결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는 호주 태양광업체 서플라이 파트너스와 7천만호주달러(약 567억원) 공급계약을 체결함. 그린에너지의 해외매출 비중이 70%이며 그 중 미국의 비중이 가장 컸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로 어려운 상황임. 이번 계약은 호주에서 7년안에 체결한 공급계약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음. (아시아경제)

GasLog newbuilding set for seven-year Centrica deal

GasLog는 최근 체결한 장기공급계약에 LNG선 신조 1척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짐. 해당 선박은 GasLog가 삼성중공업에 발주해 현재 수주하고 상태인 선박으로 알려짐. 또 계약에는 옵션 2척이 포함돼있다고 알려짐. GasLog는 높은 LNG 수요로 LNG 해운 시황에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밝힘. (TradeWinds)

"긴급자금 8000억 필요"… 현대상선, 늦어지는 지원안에 피가 마른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이 장기적 생존을 위해 8천억원 가량의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 등 지원방안을 찾고 있다가 알려짐. 긴급자금은 올해 7월까지 친환경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발주하고, 컨테이너선 박스 구매와 터미널지분매입 등에 필요한 상황임. (한국경제)

금감원, 현대엘리 CB 발행 위법성 검토

금융감독원은 현대엘리베이터가 2015년 발행한 2천억원 규모 전환사채(CB)의 위법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임. 경제개혁연대는 CB의 매도청구권이 현대글로벌과 현정은 회장에게 양도된 방식이, 사실상 '분리형 BW'를 발행한 셈이란 점을 근거로 위법성 조사를 공개 요구함. (서울경제)

현대중 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패소…'회사 압박카드' 실패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2,502명이 사측에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패소함. 근로자들은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5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함. 이번 소송은 노사 간 통상임금을 놓고 진행 중인 '대표소송'과 관련, 노조가 회사를 압박하려는 목적으로 시도했다고 알려짐. (연합뉴스)